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06141, KOREA
Phone: 82-2-3210-2480~3
Fax: 82-2-3210-2488
<https://www.bridgestone->

장마철, 빗길 안전은 접지력에서 나온다

장마철 타이어 및 차량 안전 점검,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 올 여름, 일찍 시작하는 장마에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 장마에는 폭염, 호우,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이 혼재하는 도로 환경
- 타이어 점검은 최우선 — 빗길 안전은 '접지력'에서 나온다
- 트레드 깊이 3mm 이상, 적정 공기압, 사이드월 무손상 세 가지가 빗길 제동거리와 수막현상을 좌우
- 비 올 때는 무조건 감속
- 빗길 안전운전의 3원칙 ▲감속, ▲차간거리 확보, ▲급조작 금지

서울 (2026년 06월 25일) — 장마철 운전자들의 신경을 가장 곤두서게 하는 순간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둔다면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전 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현영,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마철을 대비한 차량 안전 점검 요령과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습관을 소개한다.

국내 기상청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따뜻하고 수증기가 풍부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여름철 장마기간이 길어지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13.6명으로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11.8명(3년 평균)보다 높았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며 강수량과 강수일이 크게 늘어 빗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가 연평균 32건 발생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마철 안전 운행을 위해서 ▲타이어 ▲와이퍼 ▲워셔액 ▲등화장치 네 가지를 점검하라고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말한다. 특히 타이어는 차량과 노면이 직접 맞는 유일한 곳으로, 빗길에서의 접지력, 제동력, 조향 성능, 수막현상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타이어 점검은 최우선... 빗길 안전은 접지력에서 나온다

장마철 빗길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어 상태. 노면에 고인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타이어가 물 위에 떠오르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동력과 조향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빗길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할 것,

둘째, 3mm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확보할 것.

먼저, 타이어 공기압은 차량 제조사가 권장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빗길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압을 낮추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타이어 성능을 저하시켜 수막현상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적정 공기압에서 트레드 깊이도 반드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내 법정 트레드 깊이 최소 기준은 1.6mm. 하지만 장마철에는 충분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해 3mm 이상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트레드가 마모될수록 빗길 제동력과 접지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기압과 트레드 깊이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타이어 측면(사이드월)의 균열이나 찢김, 돌출 등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타이어에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점검 받도록 한다.

■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워셔액·등화장치 점검

장마철에는 시야 확보가 안전운전의 기본이다. 와이퍼 블레이드가 마모되면 빗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장마 전에 와이퍼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하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안개등과 같은 등화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장마철에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로 유리에 김이 서릴 수 있어 에어컨과 공조장치의 제습 기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감속

차량 점검만큼 중요한 것은 운전 습관이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빗길 안전운전의 3대 원칙으로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감속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급조작 금지를 강조한다. 특히 앞차가 튀기는 물보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평소보다 여유 있게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급가속·급제동·급차선 변경 등 급격한 조작은 차량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강도욱 이사는 “빗길에서 차량을 달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은 결국 어른 손바닥 크기의 타이어 접지면뿐”이라며 “장마철 빗길 사고는 대부분 타이어가 노면의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만큼 타이어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레드 홈이 마모되면 배수 성능이 저하돼 수막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장마철에는 트레드 깊이 3m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며 “트레드 깊이뿐 아니라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타이어가 손상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안전한 빗길 주행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